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부터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까지 계속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4남, 6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1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이번 성탄절 세례식을 위한 유아세례교육과 세례교육이 12월 8일(토) 오후 2시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입교교육은 12월 15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후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2012년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후쿠시마 어린이 힐링 캠프 후원을 위한 콘서트가 12월 8일 오후 3시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시간을 하루에 10분 이상 늘려보십시오. 대림절기를 맞아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대림절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오늘 식당 봉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경선 구성실 김기성
 다음 주 식당봉사 : 정영선 허정호 백성래 홍준숙 한숙경 임창선 이민범
 오늘설거지봉사 : 김기성 박인혁 이지훈 박찬덕
 다음주설거지봉사 : 양상철 박재란 신인경 김광수
 새 교 우 : 안세희(청) 고정림(7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둠속을 헤매며 거짓 불빛을 찾아 떠도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온갖 그럴싸한 허울로 가려진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겨울 추위로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로 인해 겨울을 더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온기를 나누는 일이 생명을 나누는 일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곽상준	최경미	권미정	권혁순	박혜경	김근종
정옥영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김수진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용진	박호선	김윤수	김은정	김인걸	문영혜	김정민	이혜령	김준우
우순덕	김준호	곽혜자	김종수	이순정	김지윤	김희진	박홍재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옥순	박옥식	박정숙	방문성	박혜경	방민방	방준
변재민	이소혜	송임희	신진식	변혜정	안세진	안정숙	왕수명	유상진
유은정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동천	이봉옥	이용현	이우엘
이은자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증자	김창경	임승동	백혜숙	임창선
장다운	장재영	김재영	정연희	정한구	왕영순	조병무	송양진	조병억
조정연	최종원	추현영	한규숙	한상균	한인철	조윤숙	허명선	허준호
홍순구	안홍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김정진 송남우 황경화 송하진 정다솜 정윤성 정현숙 홍성식 이유리
 무명2

녹색꿈헌금:

김범진 김미현 김영순 송희원 송채원 송우석 윤정덕 이나단 이승진
 황현성 이오복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박효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허정운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송임회	배부레	최경미	김진경	안정숙	문복순	배삼순	이봉옥	권미숙	안홍숙	김경혜	최영혜			
장혜숙	노순옥	차혜심	박정숙	박옥순	정선희	박효선	강순배	구성실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마음으로 읽는 글

감나무

참 늙어 보인다

하늘 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 그리 많았던지

함부로 끈게 뺏어 올린 가지 하나 없다

멈칫멈칫 구불구불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 온 몸 부르터

늙수그레하나 열매는 애초부터 단단하다

떨다

꽃생각을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다짐

독하게, 꽃을, 땀감, 떨구며

지나는 바람에 허튼 말 내지 않고

아니다 싶은 가지는 툭 분질러버린다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다스려

영혼이 가벼운 새들마저 동지를 틀지 못하고

앉아 깃을 쪼며 미련을 떨치는 법을 배운다

보라

가을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

늙은 몸뚱이로 어찌 그리 예쁜 열매를 매다는지

그뿐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죽어버린 듯 묵묵부답 동안거에 드는

- 함민복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써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허물과 세상의 부정의함으로 쉽게 절망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참된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곳곳한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주관 예배 설교 : 김기석 목사	12월 기도의 밤 인도 :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윤 윤 선생 이민범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정민 장대호 심상숙 이해령 한숙경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긴긴 겨울을 어떻게 보내지?

식물도 동물처럼 잠을 잔다. 그렇다면 식물도 동물처럼 밤에 쿵쿵 코를 골면서 잘까? 그렇지 않다. 식물이 자는 때나 자는 모습은 동물과는 전혀 다르다. 동물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잔다.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은 해가 지면 잔다. 그러나 이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는 낮에 자고 밤에만 활동한다. 또 잘 때나 깨어 있을 때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식물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그 대신 몰아서 한 계절에 잠을 잔다.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에서는 추운 계절에 자고, 사막에서는 건기 동안 잔다. 말하자면 동물은 하루 중 일정 시간에 자고, 식물은 현명하게도 자신이 살기 어려운 계절에 잔다.

겨울잠을 자는 반달곰은 가을에 들어서면 솜털이 촘촘하게 돋고 하루 15kg 이상씩 먹어 가죽 밑에 지방을 두껍게 저장해 둔다. 식물도 동물 못지않게 미리미리 준비한다. 봄철 순이 어린 가죽나무는 수액이 달콤해 꽃매미가 몰려들지만 8월이 되면 월동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수액성분에 변화가 생겨서 맛이 없어진다.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면 꽃매미는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로 옮겨간다. 포도나무는 과실을 완성하기 위해 한창 달콤함 수액을 올리고 있다. 그 때문에 가을에 포도농가는 큰 피해를 입는다.

처서(8월23일경)로부터 시작해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추분(9월 28일경)이 지나면 대부분의 나무는 잎에 있는 양분조차 줄기나 뿌리로 내보내기 시작한다. 물도 조금만 빨아들인다. 성장도 멈춘다. 불필요한 엽록소를 분해하여 그중에 필요한 성분은 저장한다. 그 결과 단풍이 든다. 추위집에 따라 세포가 얼어 터지지 않게 물을 모두 세포 밖으로 내보내 세포의 농도가 진해진다. 그래서 소나무나 사철나무 같이 상록수의 겨울 잎은 물이 줄어들어 봄에 비해 어둡고 칙칙하다. 그렇다면 밤에도 낮처럼 밝은 가로등 밑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어떨까?

8월 중순이 지나자 우리 집 주변 논에서는 모두 이삭이 쫄았는데도 한

논배미의 귀통이 벼는 이삭이 나오기는커녕 키만 경중하게 자랐다. 다른 벼들은 익어서 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10월에서야 겨우 이삭이 나왔지만 마치 반항하는 10대처럼 고개를 뺏뺏하게 세우고 있다. 눈을 들어보니 논가의 전봇대에 가로등이 걸려 있다. 한국전력에 신고해서 가로등을 길 쪽으로 돌려놓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밤에도 계속 빛이 있으니까 만든 양분의 저장을 잊은 채 미약하나마 광합성을 하는 통에 낱알이 영글지 못한 것이다. 이 점을 안 한국전력은 은박지로 논밭 가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파트의 정원에서 이런 광경이 목격되었다. 가로등을 품고 사는 자작나무는 가을이 왔는데도 가로등에 속아서 겨울준비를 하지 않았다. 단풍도 들지 않았고 잎자루에 떨어져 생가지 않아 낙엽도 되지 않은 채였다.

일본에서는 늦가을에 가로등 옆에서 자라는 미루나무를 조사해 보았다. 가로등 옆 여전히 잎이 파란 나뭇가지는 영하 5도에서, 조금 떨어져 단풍 든 가지는 영하 15도에서 얼어 죽고, 가로등 불빛이 전혀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완전히 낙엽이 된 가지는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죽지 않고 버텼다. 겨울준비가 이렇게 덜 된 나무는 겨울에 얼어 죽는다. 결국은 가로등 불빛이 미루나무를 얼어 죽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참나무를 겨울이 없는 열대지방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 일년 내내 자라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 절기상 우리의 가을쯤 되면 습관적으로 역시 낙엽이 된다. 그러나 따뜻해도 새싹이 잘 안 나온다. 12월은 우리나라 나무들에게는 하루 종일 한밤중이다. 이때는 따뜻한 곳에 놓아 두어도 싹이 나오지 않는다. '절대휴면' 중이기 때문이다. 12월 말까지 찬 곳에서 있었던 것을 따뜻한 곳에 놓아두면 싹이 나온다. 그때는 반쯤 잠이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눈이 터져 자란다. 이렇게 반쯤 깨어 있는 상태를 '상대휴면'이라고 한다.

잘 자 두어야 잘 크고 다시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나무나 꼭 같다. 또한 따끔한 겨울을 보낸 사람이 더욱 인간적이고 더 번성하는 것도 나무와 같다.